

3-9-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 시편 91:1-16

본문말씀: 히브리서 11:6

말씀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성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야 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8-9)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함에 대하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창 12:1-3)

이때에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떠났으며...”(히 11:8)

그는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으로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나 신념으로 따지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씨도 주시지 않은 가운데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창 15:5)

이때에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롬 4:18)

성경은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백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롬 4:19-25)

이삭이 자라서 장성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 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1-2)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두 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창 22:7-8)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앞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창 22)

성령께서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음이라.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히 11:19)

성경은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갈 3:7)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그분을  
끝까지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버가 되는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서 오시는 날까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비하신 면류관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